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0월 29일

CUOMO 주지사, 향후 폭풍우와 발생 가능한 긴급 연료 대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UPSTATE NEW YORK의 전략적 예비 저장소 발표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 Rensselaer, Brewerton, Rochester, Marcy, Vestal 및 Buffalo의 전략적 예비 저장소를 통해 초동 조치에 대한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가용성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향후 폭풍우를 포함한 비상 사태에 발발 시 대처하기 위한 가솔린과 디젤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Upstate New York 6개의 주요 지역에 전략적 예비 연료 저장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 저장소는 선포된 비상 사태 발발 시 Upstate New York의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Upstate 예비 저장소의 설립은 수퍼태풍 Sandy로 인한 혼란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주지사의 주 전체 연료 인프라 보호 계획인 Fuel NY의 핵심 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전략적인 Upstate 예비 저장소는 재난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재난 담당자들이 지신들의 비상 대응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수퍼태풍 Sandy의 여파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연료 인프라 계획에 대한 이 추가안은 뉴욕이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달성하고 더 나은 뉴욕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략적 예비 저장소에는 약 250만 갤런에 달하는 가솔린과 초저유황 디젤 연료가 보관될 예정이며, 이 연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 선포된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초동 조치를 위해 공급될 것입니다. Upstate New York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주요 예비 저장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nsselaer
- Brewerton
- Rochester
- Marcy
- Vestal
- Buffalo

Upstate Strategic Fuel Reserve Program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1,000만 달러의 자금과 함께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리합니다. 이 연료의 소유주는 뉴욕주이고, 저장소는 Buckeye Terminals, LLC에서 관리합니다. 공급업체는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에 사전 등록하여 비상 사태 선포 시 연료를 공급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예비 저장소의 연료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Fuel NY 는 선포된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유소의 비상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뉴욕주의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Long Island와 Westchester 및 Rockland 카운티에 있는 모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비상시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Fuel NY는 Long Islan에 뉴욕주 최초의 State Strategic Gasoline Reserve를 설립했습니다. Fuel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회장 겸 CEO인 John B. Rhodes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Upstate Strategic Fuel Reserve Program은 그러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장소는 경찰, 구급차, 소방서와 같은 중요 기관들의 초동 조치를 보장하고, 기타 응급 요원들이 이러한 연료로 뉴욕 시민들을 돕고, 심각한 기상이 닥쳐도 복구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Upstate Strategic Fuel Reserve는 뉴욕 전력청, 뉴욕주 기타 전력 당국 및 초동 조치 팀이 해당 출동 및 복구 요원들이 작업 트럭 및 기타 차량에 필요한 연료를 가지고 태풍이 지나간 후 전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비 저장소는 향후 태풍의 파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비상 대비 이니셔티브입니다."

Buckeye Partners, L.P. 회장 겸 CEO인 Clark C. Smith는 "Buckeye는 Upstate New York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정제 연료 제품 저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상륙한 수퍼태풍 Sandy가 지나간 후 신속하고 안전한 재건을 달성한 Buckeye의 성공은 당사가 공급하는 시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Buckeye는 향후 또 다른 비상 사태 발발 시 초동 조치에 대한 저장 및 배급 옵션의 일부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